

보성 ‘K-TEA 보성말차’ 글로벌 성장 시동걸었다

일본 시즈오카현 벤치마킹…차산업 고도화·관광 자원화
김철우 군수 “전통·첨단기술 융합…보성 지향 미래 방향”

보성군이 일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차산업 활성화와 ‘보성말차’ 세계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시즈오카현을 방문해 ‘K-TEA 보성말차 글로벌 성장을 위한 벤치마킹 연구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수는 급변하는 글로벌 말차(抹茶) 시장의 성장 흐름에 대응하고, 보성 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성차생산자조합, 관계 공무원 등 23명이 참여해 일본의 첨단 제다 기술, 마케팅 전략 등을 확인했다.

시즈오카는 일본 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차 중심지로, 품질 표준화와 과학적 생산관리,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를 확립한 지역이다.

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말차 재배·생산성 향상 기술, 스마트 가공·품질 관리 시스템, 글로벌 유통·마케팅 전략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해 ‘K-TEA 보성말차’ 산업의 고급화와 세계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주요 일정으로는 시즈오카현립 차업연구센터를 방문해 차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 등을 공유했다.

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스마트 에너지 다원인 스즈카 솔라 차원과 오부치 사바 계단식 차밭을 견학해 생산 현장의 첨단화 모델을 살펴봤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시즈오카는 전통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세계적인 차 산업 도시로, 보성이 지향해야 할 미래 방향과



김철우 보성군수 등 방문단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스마트 에너지 다원인 스즈카 솔라 차원을 방문했다.

달라있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선진 제다 기술과 품질관리 비결을 재해석해 보성말차 산업에 적극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스마트 가공시설 확충과 친환경 말차 재배단지 조성, 차산업 고도

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생산에서 체험·관광·수출로 이어지는 통합형 차산업 체계를 완성해 ‘글로벌 녹차

수도 보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순천시는 최근 ‘제10회 순천의 맛! 전국음식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순천시 ‘힐링 푸드’로 따뜻한 위로 전달

제10회 순천의 맛 전국음식경연대회 성료

순천시가 가을의 풍요로움과 따뜻한 음식 향기로 가득 채워졌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제10회 순천의 맛! 전국음식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입의 치유, 순천의 맛!’을 주제로, 신체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온기를 더하는 치유음식 발굴을 통해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지역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열정 가득한 요리인들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일반부와 테이크아웃부 총 20개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저마다의 사연과 정성을 담은 요리를 선보였다.

심사 결과 일반부 대상(문체부장관상)은 ‘건강한 조리조’ 팀(남원시), 테이크아웃부 대상(전남도지사상)은 ‘승엽상헌’ 팀(인천광역시)이 각각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특히 두 팀은 음식 본연의 맛과 건강함

을 조화롭게 표현하며, 현대인에게 위로와 휴식을 전하는 ‘힐링 푸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등이 시상됐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조리법 전수 교육과 메뉴 브랜드화 지원 기회가 제공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음식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순천이 사람과 자연, 음식이 어우러진 미식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먹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음식경연대회는 2025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해 열렸으며, 순천 대표 음식 전시와 시식 행사,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가을의 감성을 더한 미식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지역 돌봄체계 강화

군, 12월까지 시범사업 실시…생후 6개월 이상 7세 이하 아동

곡성군은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 시간 외 양육자의 야근, 출장, 경조사 참여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맞춤형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사업’을 12월까지 시행한다.

군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군립 아해돌 어린이집(곡성읍)을 수행시설로 선정했으며, 시범사업 이용 대상자는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

녀 또는 곡성군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자녀 중 생후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다.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월~금),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돌봄이 가능하다.

또 긴급 또는 사전 신청이 있을 경우 는 익일 오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해 갑작스럽게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



곡성군 아해돌 어린이집 전경

인과 청년창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현재 돌봄 전담 교육교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 정원은 총 5명으로 돌봄 이용 시간당 2000원의 이용 요금(양육자 부담)이 있다.

영유아 1인 기준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기준 시간을 넘기더라도 시설장의 판단을 통해 추가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은 지역 내에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행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돌봄 공백을 차곡차곡 메워가며 출생한 돌봄체계를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장흥군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첫 수매로 6일 화진면 천관농협에서 기루쌀 179t을 매입했다.

장흥,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첫 수매

1만2065t 배정…지난해 매입량 대비 4.6% 증가

장흥군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첫 수매로 6일 화진면 천관농협에서 기루쌀 179t을 매입했다.

장흥군의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총배정량은 30만1638포대/40kg(1만2065t)이다. 수매 물량은 건조벼 16만6634포대, 산물벼 2만8464포대, 기루쌀 7만8040포대, 친환경 2만8500포대로 전년 매입량(28만8243포대) 대비 4.6% 증가

했다.

올해 배정량 가운데 벼 재배면적 감소와 GAP 인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행점진 완료 후 11월 중 군에서 농가에 직접배정할 예정이다. 개시무늬병 등 피해 벼에 대해서는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매입가격 중간경산금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됐고, 최종경산금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장흥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포장재 제사용을 금지하고, 매입대상 품종이 새청무, 산동진으로 한정되므로 품종위반에 따른 수매제한(5년간)을 받지 않도록 농가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올해 개시무늬병 등 농업재해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한해 벼에 대해서는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매입가격 중간경산금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됐고, 최종경산금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12월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재탄생 해양수산 문화·편의시설 조성

광양수산물유통센터가 유통센터와 문화시설 기능을 갖춘 해양수산 복합문화공간으로 태어난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미입점 상태로 남아있는 수산물유통센터의 유휴공간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상반기 수산물 유통센터 활성화 TP팀을 운영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 건축 및 공간 구성 전문가의 제안도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유통센터는 수렴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내·외부 유휴공간을 공연과 전시 등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지역 소상공인 플라마켓과 연계한 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고, 지난달에는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특별전 ‘시간의 율리’이 전시됐다.

유통센터는 총 부지 6303㎡에 건축면적 2152㎡, 연면적(3층) 6951㎡로 지난 2023년 12월 개장했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1000여㎡가 장기간 상가임점이 안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유통센터시설 개선, 문화공간 조성, 해양수산 연계 문화행사 개최, 미입점 편의시설 활성화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승재 광양시 철강항만과장은 “광양 수산물유통센터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해양수산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 재정립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 단체 캠핑 명소 발돋움

카라반 캠핑객 150명 방문…자연 속 힐링·낭만 즐겨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이 최근 3일간 32팀 150여명의 단체 캠핑객이 방문하는 등 가을 단체 캠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은 넓은 잔디광장과 탁 트인 시야 너머로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즐기기에 최적의 캠핑장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카라반 캠핑 동호회 행사를 위해 방문한 가족 단위 캠핑객들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연계 도자 체험, 카라반 꾸미기, 코스튬 퍼레이드, 명랑운동회, 일렉기타 공연, 불꽃 마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해 깊어 가는 가을의 낭만과 여유를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캠핑객들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덕분에 단체 캠핑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며 “잔디밭에서 가족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을 벗 삼아 쉬며 진정한 힐링과 가을의 낭만을 만끽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흥운대 청소년야영장이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자연 속 쉼과 즐거움이 있는 힐링 캠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981177@gwangnam.co.kr